

간호사 인권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 촉구

자긍심 갖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정착시켜야

국회 '연속 정책간담회' 열려

윤종필·송옥주 의원 주최 - 대한간호협회 주관



‘간호사 근로현장 및 인권 실태’ 주제발표를 한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여의도성모병원지부 지부장(간호사)은 보건의료노조에서 실시한 2017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간호사 1만6422명 중 87.9%가 매일 연장근로를 하고 있으며,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60분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에 따른 보상을 전혀 받지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한 연속 정책 간담회의 첫 번째 순서가 '간호사 인권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 주제로 마련됐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 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12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인사말을 한 윤종필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인권침해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간호사들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고, 식사를 제때 못 챙겨 먹는 것이 현실이며, 신입간호사들의 이직률이 34%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숙련된 간호사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병원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간호사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근무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고, 병원은 간호사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병원에 남은 간호사들이 더 많은 환자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서 "결국 환자와 국민들이 낮은 간호서비스를 받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반인권적이고 반노동적인 간호사들의 근무 현실을 알고 나서

충격을 받았다"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법·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힘이 닿는 데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최근 병원행사에 간호사를 강제로 동원하거나 수습기간 중 임금을 미지급하는 등에 관한 기사가 연일 보도되면서 병원의 부당노동행위와 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간호사들이 인권침해와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소명의식과 자긍심이 낮아지고 이는 간호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현장의 간호사 부족

환자 안전과 건강 지키기 위해
숙련된 간호사 떠나지 않는 병원 만들어야

복지부, 간호인력수급 종합대책 마련 중
고용부, 근무환경 문제 병원 근로감독 실시

은 또다시 업무과중으로 이어지고 환자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면서 "간호사가 건강한 근무환경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못한다는 응답이 62.3%에 이르렀다.

월 평균 야간근무는 6~7개인 경우가 64.7%로 가장 많았으며, 8개 이상인 경우도 13.4%였다. 식사를 거르는 비율도 64.4%로

병원행사에 동원, 수습기간 임금 미지급 등
간호사 인권침해 사회적 문제로 확산

국가인권위 '보건의료분야 여성인권 정책권고'
모성보호제도 준수, 폭력·성희롱 예방 등

높게 나타났으며, 식사를 한다고 해도 20분 미만인 경우가 46.6%로 가장 많았다.

연차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며(58.4%), 미사용 부분에 대해 일부만 수당으로 지급받거나(18.4%)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8.0%) 경우가 많았다.

3년 이내 임신·출산 경험이 있는 간호사 3528명 중 가계계획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하지 못한다는 응답자가 31.0%에 이르

제38회 간호문학상 수상작 발표

간호사신문이 주최한 제38회 간호문학상 수상작이 확정 발표됐다.

올해 간호문학상 공모에는 소설 14명, 수기 36명, 시 35명, 수필 43명 등 4개 부문에서 총 128명이 응모했다. 간호사 103명과 간호대학생 25명이 참여했다.

각 부문별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소설부문 △당선작= '실밥' (송성연·동원공과대 2학년) △가작= '고추 먹고 맴뎀' (최혜지·대구가톨릭대 4학년)

◇수기부문 △당선작= '아름다운 마지막을 위하여' (장화숙·서울시 서남병원) △가작= '신생아중환자실의 일상' (정재현·분당서울대병원)

◇시부문 △당선작= '인연' (이숙련·동원과학기술대 교수) △가작= '보름달' (오금숙·메디칼케어중앙병원)

◇수필부문 △당선작= '밥과 임종실' (허수정·명지병원 임통합치유센터) △가작= '일상을 바라보는 눈길' (공정원·울산대병원)

심사는 소설과 수기부문은 전상국 작가(김유정문화재단·강원대 국문학과 명예교수), 시와 수필부문은 흥정선 인하대 한국어문학과 교수가 맡았다.

상금은 소설과 수기부문의 경우 당선작 70만원·가작 50만원, 시와 수필부문의 경우 당선작 50만원·가작 30만원이다.

시상식은 내년 2월 대한간호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간호문학상은 간호문화 발전과 간호사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 1978년 간호사신문(당시 간협신문) 100호 발간을 기념해 제정됐다. 올해 수상자를 포함해 총 261명의 간호문인을 배출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렀고, 가장 큰 이유는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제한된 임신 중 초과근로를 경험한 간호사가 58.6%, 야간근로를 경험한 간호사가 21.7%로 나타났다.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4.2%만이 사용했고, 출산 전·후 휴가 사용도 76.5%에 불과했다. 유·사산 경험이 있는 간호사 중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모두 사용한 비율은 46.9%에 그쳤다.

폭언을 경험한 간호사가 60.0%, 폭행을 경험한 간호사가 11.4%였다. 폭언 및 폭행의 주된 가해자는 환자 및 보호자였다. 이때 간호사들은 심한 모욕감과 심리적 스트레스로 고통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혼자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최희선 간호사는 "간호사를 향해 환자안전과 간호서비스의 질을 보장해야 하며, 실질적인 간호사 확충 유인 효과가 있도록 간호

등급제 수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간호사의 경력단절을 막고 장기간 근속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모성보호 관련 법 위반 시 강력한 제재와 처벌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조직문화를 개선해 직원을 존중하는 병원을 만들어야 하며, 직원존중·노동존중·환자존중을 위한 공동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환경 개선사례' 주제발표를 한 조성현 구로성심병원 간호부장은 "간호사 인력난으로 벼랑 끝에 선 병원을 살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간호사 인력이 안정되면서 진료 전반이 안정되고 의료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병원이 지속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다는 걸 간호사들이 믿어주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2면에 계속)

정규숙·최수정 기자

행복한 간호사가 만드는 행복한 병원, 푸르덴셜생명이 응원합니다



푸르덴셜생명은 간호사분들이 행복할 때 환자 역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푸르덴셜은 간호사가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인생에서의 중요한 재정계획'에서부터 '자기관리 노하우'까지 모두 챙겨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 푸르덴셜생명의 "찾아가는, 간호사 특별 세미나"를 통해 만나보세요!!

"찾아가는, 간호사 특별 세미나"란?

푸르덴셜이 직접 병원 또는 인근의 모임 장소로 찾아가 간호사를 위한 세미나를 제공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 신청 대상: 50인 이상의 간호사로 구성된 병원, 모임, 단체 등
- 세미나 구성:
 - 특강 1. 간호사 Dream을 완성하다!! 간호사를 위한 재무설계 솔루션
 - 특강 2. 간호사 Look을 완성하다!! 간호사를 위한 Make-up class
- 신청 및 문의: "찾아가는, 간호사 특별 세미나 담당자" 앞으로 연락주시고, 전화: 02-2144-2163, 2132 문자/카톡: 010-5530-1881

